

케이팝 개척자 세븐 일본 재도약 나선다

강남·티아라도 일본시장 '노크'

세븐과 강남, 티아라가 저마다 특별한 의미로 일본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린다.

7월7일 일본에서 3년 만에 새 음반을 내는 세븐은 '케이팝 개척자'의 재입성으로 눈길을 모은다. 세븐은 현재 케이팝이 본격 태동하기 전이었던 2005년 일본시장에 진출해 발표 음반마다 오리콘차트 10위권에 올려놓고, 1년도 안돼 1만석 이상의 아레나급 콘서트를 벌였다. 미국 진출과 군입대로 공백을 가졌던 세븐은 일본 톱가수 SMAP를 키운 빅터엔터테인먼트에 새 동지를 틀고 다시 한 번 도약을 노린다. 빅터엔터테인먼트와 계약한 첫 한국가수로 기록됐다.

소속사 일레븐나인 관계자는 "세븐의 풍부한 현지 경험과 유창한 일본어가 빅터사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 같다"고 말했다.

5월25일 일본에서 싱글 '레디 투 플라이'를 발표하는 강남은 역진출이다.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강남은 2008년 일본에서 'KOB'라는 밴드로 데뷔했다 8년 만에 '강남'이란 이름으로 다시 일본 시장을 향한다. 무명 밴드의 보컬이었지만 한류의 영향으로 일본에서도 주목받는 스타로 발돋움해 이번 일본행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평소 "한국과 일본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던 강남은 여전히 다짐 속에 현지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티아라는 5월2일과 4일 각각 도쿄와 고베에서 팬미팅을 벌이고 2년 만에 현지 팬들을 만난다. 티아라는 2011년 9월 데뷔 음반 발표 당일 오리콘 1위, 2년 연속 부도칸 콘서트로 '한국 걸그룹 최초'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몇 년간 집중된 중국 활동에서 벗어나 지난 2년여 일본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관심거리다.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 측은 "일본 팬들이 오랜만에 방문하는 티아라를 위한 깜짝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으며, 현지 매체도 다양한 기사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김원겸 기자

세븐▶



마마무는 시원스런 가창력과 독창적인 퍼포먼스,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데뷔 2년 만에 정상급 걸그룹으로 발돋움했다.

사진제공 | RBW

마마무 “멋있는 여자 아이콘 되고파”

데뷔 2년만에 '대세 걸그룹'

팬들과 소통... 고정관념 타파
연예인명? 우린 언제나 초심
마마무만의 색깔 갖고싶어요

마마무(솔라·문별·휘인·화사)는 야생의 들꽃이다. 3년의 연습기간 멤버들은 도제식 교육이 아닌, 자율적 연습으로 실력을 키웠다. 기본적인 트레이닝 외에는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이었다. 스스로 노래를 만들어 무대를 직접 구상해보는 과정에서 연습계획표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한국 케이팝 걸그룹의 '표준'에 맞춰 훈련되지 않은, 저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개발한, 자생력의 그룹이다.

들꽃은 누가 가꾸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존재감을 지켜내고, 투박하지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향

기를 갖고 있다. 마마무가 데뷔 2년 만에 '대세'가 된 것은, 그 들꽃 같은 매력 덕분이다. 2014년 데뷔 음반부터 자작곡을 담고, 직접 춤을 구상하며 뮤직비디오 시안까지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자생력'의 힘이었다.

데뷔곡 활동에서 보여준 '개다리춤'으로 이들은 꾸밈없는 순수한 매력을 그대로 드러냈다. 모범답안에 맞추려하지 않았던 덕분에 "독창적이고, 자유분방한" 무대매너로 강렬한 첫 인상을 남겼고, 작년 '음오아예'를 거쳐 2월 말 낸 최신작 '넌 is 뭘들'로 데뷔 2년 만에 각종 차트와 음악방송 1위를 휩쓸었다.

마마무의 인기 요인은 그래서 '유쾌한 무대', '내숭 없고 솔직한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기존 아이돌에서 볼 수 없던 자유분방한 매력은, 연습생부터 키워온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습 덕분이다. 아울러 대중과 적극 소통하며 '친구

같은 존재'로 팬들을 키우기도 했다. 자신들의 무대영상과 노래 애드립에 대한 팬들의 의견을 반영해 팬들의 '주인의식'을 키워주고 있다. 모두 "기본 걸그룹의 고정관념을 깨는 일들"이다.

"팬들은 자신들이 마마무를 키운다고 생각한다. 가수와 팬이 음반 활동을 함께 해나가며 함께 성장하는 것. 멋있지 않나."

마마무는 최고의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대세'라는 말은 가당치 않라며 "옹알이를 하다 이제 한 발을 내디딘 아기"에 자신들을 비유했다. "이제 뭔가 시작한 느낌"이라고 했지만, 스케줄을 10분 단위로 쪼개 쓸 만큼 바쁘다. 찾는 곳이 많으니 음악방송 출연 중에도 대기실에서 방송 관련 미팅과 각종 인터뷰, 영상촬영에 임하며 스케줄 중간 중간 라디오에도 출연한다. 하루 수면시간도 3~4시간으로 줄었다.

"매일 스케줄에 빈틈이 없다. '대

세'라는 말 제값할 수 없지만, 엄청 바빠졌다."

마마무를 기획하고 데뷔시킨 작곡가 김도훈은 이들에게 '항상 겸손하라'고 주문하며 이전보다 더 엄하게 대한다. 이른바 '연예인 병'의 우려란 걸 알고 있는 멤버들은 "그러나 우리는 '언초모드'"라며 해맑게 웃었다. '언초모드'는 '언제나 초심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들은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게 또 있다. "마마무만의 독보적인 색깔을 갖는다는 목표"가 그것이다.

"기왕 가요계에 발을 내디뎠으니 한 획을 그어야 하지 않겠나. 흔히 '시대의 아이콘'이란 말을 한다. 각 시대마다 떠오르는 분들이 있다. 마마무도 '멋있는 여자'로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러려면 '아! 이거, 마마무 스타일이네'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 김원겸 기자 gymmy@donga.com

스타, 그때 이런 일이 <1999년 3월 30일>

표절의혹 '청춘' 조기 종영



1999년 오늘 MBC 미니시리즈 '청춘'이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날 종영은 불명예스러운 것이었다. 일본 후지TV가 1997년 방송한 드라마 '리브 제너레이션'을 표절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MBC는 방송 초반부터 쏟아진 표절 의혹에 3월4일 조기 종영키로 했다고 일찌감치 발표했다. 결국 16회 방송을 예정했던 '청춘'은 이날 단 10회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다.

'청춘'은 장동건과 김현주, 황인성, 황수정 등이 주연한 드라마. 컴퓨터 회사에 다니는 남자가 이제는 고교 선배의 약혼녀가 된 첫사랑을 10년 만에 다시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끝내 자신의 사랑을 되찾지 못한 남자는 자신을 짝사랑하는 회사 직원의 마음을 받아들이지만 그마저도 세상을 떠나버린다. 제작진은 당대 청춘들의 사랑과 방황을 그리겠다는 기획의도를 밝혔다.

하지만 '청춘'은 끝내 일본드라마를 베꼈다는 의혹과 술한 논란 끝에 사라졌다. '청춘'의 표절 시비와 조기 종영은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다. 그 이전 드라마 표절 논란이 심심찮게 불거졌지만 방송사가 이를 스스로 받아들여 조기 종영한 사례는 거의 없었었다는 점에서 많은 시청자가 충격에 휩싸였다.

작가와 연출자는 자리를 떠나야 했고, 방송위원회는 '시정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내렸다. 방송위원회는 "등장인물의 설정과 전개과정, 구체적인 상황 묘사 등이 일본드라마 '리브 제너레이션'을 표절한 것으로 판명"했다.

또 '청춘'은 방영 전 중국과 홍콩, 대만 등에 판권을 선 판매했다. 하지만 표절 논란으로 인한 조기 종영으로 관련 협상을 다시 해야 하는 수모를 겪었다. 당시 MBC는 조기 종영을 결정한 직후 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영화의 표절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방송을 내보내 또 다른 비난을 사기도 했다.

방송 프로그램이 전반적인 제작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고 관련한 심각한 논의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드라마를 비롯한 대중문화 콘텐츠의 표절 시비는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빅마우스

●"살 빠지는 게 싫어서 7개월째 운동을 안 하고 있다." (레퍼 데프콘) 29일 SBS 파워 FM '김창렬의 올드스쿨'에 출연해, '최근 취미가 뭐냐'는 질문에.

●"들 다 한국말을 잘 한다." (그룹 피에스타 차오루) 29일 SBS 러브FM 'DJ 붐의 드라이빙 클럽'에서, MBC '우리 결혼했어요'에 함께 출연하는 조세호와 배우 김수현의 "공통점"을 꼽으며,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대표전화: 41-2015-004847

서울뚝배기

대한민국 대표 국민 메뉴

20여 가지의 다양한 메뉴-식사와 안주, 가족모임, 단체회식 모두 서울뚝배기 메뉴로 충분합니다.

갈비탕 5700

순대국 5000

도가니탕 6500

갈비탕+찜 8000

무이자대출 1000~3000만원

축! OPEN 정릉점, 삼양점, 구일역점, 송도점, 창동점, 수원경기대점, 장안점 대박행진중

맛과 원가, 매출은 본사가 책임지겠습니다.

사장님은 영업만 하세요!

생산공장본사직접운영
절감되는 원가 점주에게
돌려드립니다.

업종변경/신규창업

지역상권보장

가맹문의

1661-7380

NAVER 서울뚝배기